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팜스토리(027710)

음식료/담배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강혜나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팜스토리(027710)

사료 및 도축제품 제조, 양돈사육 전문기업

기업정보(2020/11/11 기준)

대표자	편명식, 배수한
설립일자	1991년 04월 17일
상장일자	1996년 06월 29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배합 사료 제조업
주요제품	배합사료, 양돈사육 및 도축, 육가공 및 도계 제품 제조

시세정보(2020/11/13 기준)

현재가	1,165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298억 원
발행주식수	111,416,600주
52주 최고가	1,510원
52주 최저가	593원
외국인지분율	0.9%
주요주주	
이지홀딩스 외 2인	70.6%
자사주	0.7%

■ 사료 및 도축제품 제조, 양돈사육 전문기업

팜스토리(이하 동사)는 배합사료 제조, 양돈사육 및 도축제품 제조, 도계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다. 동사는 제품의 연구개발에서 생산, 가공, 유통까지 체계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여 매출을 실현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9,000억 원 이상의 매출 규모를 지속하고 있다. 동사는 사료사업부(FB), 육가공사업부(LB), 가공사업부(PB), 기타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으로는 배합사료, 양돈, 계육, 지육 등이 있다.

■ 체계적인 솔루션 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로 차별화 강화

동사는 사료 조성물 개발, 돈육 생산 프로그램 개발, 복체인 솔루션 개발 및 기술관리 등 가축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양돈환경에 특화된 체계적인 솔루션을 기반으로 양돈의 번식성적 및 성장능력을 높임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동사는 최근 해외농업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현지 생산성 및 적응성 조사 등의 연구와 해외 농업용 바이오 디젤 품종 개발 및 안정적인 국내 수급 방안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주력하고 있다.

■ 사업규모 확장에 따른 매출 증가세 지속

동사는 사업 규모 확장 및 영업채널 다양화로 매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9년 12월 (주)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를 흡수합병 후 동사의 사료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사료 효율성 개선, 판매 수수료 및 물류비 등의 조정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

육가공 사업 부문은 생생포크와 생생한우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대형 유통점 및 온라인 시장에 소포장육을 납품하는 등 영업채널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소포장육(PM) 제품 개발, 생산량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설 투자를 통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8,385.6	-6.9	205.9	2.5	128.1	1.5	9.5	2.1	234.5	156	1,764	8.5	0.8
2018	9,216.4	9.9	192.2	2.1	-89.6	-1.0	-3.9	-1.5	288.3	-67	1,699	-	0.6
2019	9,708.5	5.3	147.7	1.5	-137.6	-1.4	-3.3	-2.1	279.8	-57	1,465	-	0.8

기업경쟁력

시설 투자 및 제품 품질 확보

- 열탕 소독 시스템 구축으로 사료 공급 안전성 확보
- 자동 복부절개로봇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
- 지대사료 벌크차량 동시 운반시스템을 도입으로 농장 차량 진입 최소화

HACCP 인증 설비를 통한 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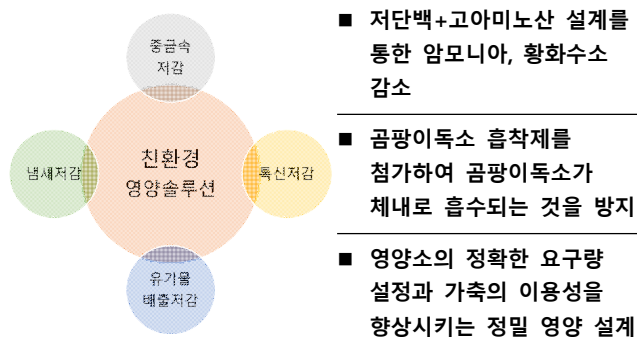
- 도축장, 부분육 가공장, 단체급식 가공장 HACCP 무결점 인증
- 거점 도축장으로 지정되어 생산의 우수성 입증
- 자체 리스크 관리 매뉴얼 별도 구축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친환경 가축 사료에 관한 연구개발

- 질소 배설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양돈 사료 개발
 - 질소 함량의 감소에 따른 돈사 내의 악취 감소
 - 섭취된 사료효율의 극대화로 친환경 축산농업 및 농가소득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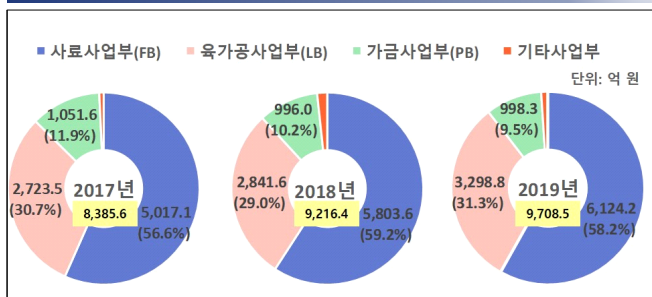
친환경 영양 솔루션 연구개발



양돈 목적에 따른 주요 제품군



최근 3개년 매출실적



시장경쟁력

국내 배합사료(양돈용) 출하금액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4년	2조 5,894억 원	연평균 2.20% ▼
2018년	2조 3,687억 원	

국내 배합사료(양우용) 출하금액

년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4년	4조 346억 원	연평균 5.92% ▼
2018년	3조 1,604억 원	

국내 및 동사의 돼지 도축 두수

구분	국내	팜스토리	시장점유율
2017년	15,732 천두	653 천두	3.90%
2018년	17,368 천두	676 천두	3.89%
2019년	17,826 천두	674 천두	3.78%

정부의 사료 정책 동향

- 사료가격 안정 및 가격인상 최소화, 축산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최근 변동사항

배합사료 사업

- 중국의 막대한 곡물 수입, 남미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유럽 내 건조기후로 곡물 가격 상승
- 미국산 곡물의 중국향 수출이 무역분쟁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곡물 해상운임의 안정세 전망

양돈 사육 및 육가공품 사업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서 가정간편식(HMR) 및 소포장육(PM) 가공 제품 온라인 B2C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I. 기업현황

수평·수직계열화를 갖춘 친환경 축산업 기업

동사는 배합사료, 도축제품 및 도계제품을 주력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국내 사료부문과 식육부문의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동사는 거점 도축장으로 지정되어 위생수준 및 축산물 처리능력에 대한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

■ 기업 개요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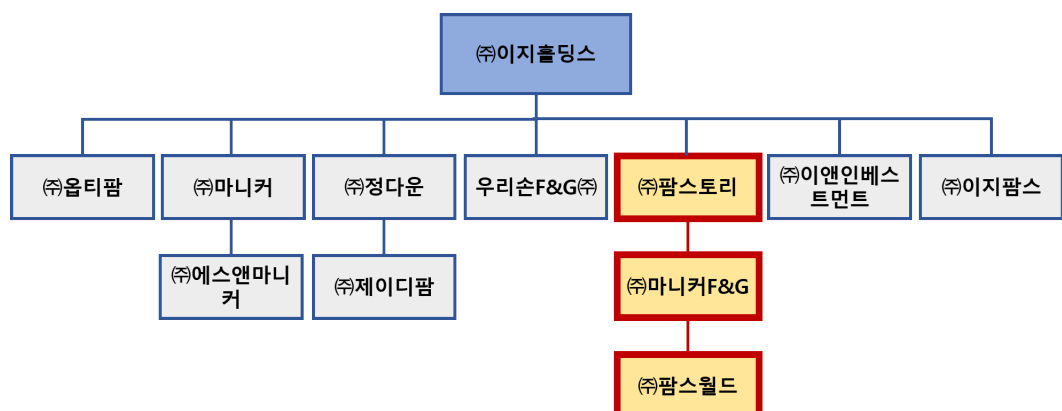
동사는 배합사료, 양돈사육 및 도축제품, 도계제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1991년 4월 (주)서일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1992년 2월 (주)도드람과 합병 후 1996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2001년 3월 (주)도드람비엔에프에 상호를 변경하고 9월 생명과학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2002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돈 전문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인증을 받았다. 이후 (주)한냉비엔에프, (주)팜스토리한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2년 3월 지금의 (주)팜스토리로 변경하였다.

■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

동사 및 (주)이지홀딩스의 반기보고서(2020.06)에 따르면, 동사의 최대주주는 (주)이지홀딩스로 70.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이지홀딩스는 1988년 3월 설립하였으며, 1999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주회사이다. 동사를 비롯하여 50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계열회사로 (주)옵티팜, (주)마니커, (주)정다운,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주) 등이 있다. 최대주주는 지현욱 대표이사로 (주)이지홀딩스의 지분 약 17.39%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2019년 12월 자회사인 (주)한국축산의회망서울사료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동사의 현재 주요 종속회사는 농업회사법인(주)팜스월드와 (주)마니커에프앤지가 있다. 농업회사법인(주)팜스월드는 양돈 축산 전문업체로 살이 찌도록 기르는 돼지인 비육돈을 전문적으로 사육 및 판매하고 있고, (주)마니커에프앤지는 계육 가공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림 1] 계열회사 현황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 사업부문별 회사현황

동사의 주요 사업은 사료사업부(FB), 육가공사업부(LB), 가금사업부(PB)로 나뉜다. 동사는 사료부문과 식육부문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와 도축 및 도축 가공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사의 도축 가공제품 판매는 돈육 브랜드인 생생포크와 한우 브랜드인 생생한우 브랜드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육가공사업부 중 양돈 사육은 동사의 종속회사인 농업회사법인(주)팜스월드가 담당하고 있으며, 가금사업부의 도계제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은 (주)마니커에프앤지가 담당한다.

[표 1] 사업부문별 회사현황

(단위: 만 톤)

사업부문	주요 제품	회사명
사료사업부(FB)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	동사 사료부문
육가공사업부(LB)	도축 및 도축 가공제품 판매	동사 식육부문
	양돈 사육	농업회사법인(주)팜스월드
가금사업부(PB)	도계제품 제조 및 판매	(주)마니커에프앤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0), NICE디앤비 재구성

■ HACCP 인증 설비를 통한 경쟁력 확보


동사는 도축장·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적합성을 인정받았으며, 원료의 선택부터 공정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 배송관리까지 생산 전 공정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체제의 위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2000년 국내 1호 HACCP 인증 도축장을 시작으로 2001년 부분육 가공장, 2002년 단체급식 가공장이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2011년 전공장 HACCP 무결점 인증을 받아 이후 5년 연속 우수 작업장으로 선정되었다.

동사는 HACCP의 76개 항목은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별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구체역과 같은 최근 몇 년간 방역 관련 이슈화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모든 공장의 소독시설을 열탕 소독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으며, 농장 차량 진입 최소화를 위해 지대사료 벌크차량 동시 운반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2011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향후 도축, 가공, 유통을 연계한 경쟁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갖춘 거점 도축장으로 선정되었다. 거점 도축장 선정위원회는 매년 선정기준 적합여부 등을 정기 심사하고 있으며, 동사는 2018년 거점 도축장 A등급을 받아 위생수준 및 축산물 처리능력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 배합사료 주요 제품군 : 번식돈, 자돈, 육성/비육돈 사료

동사의 주요 제품은 번식돈, 자돈, 육성/비육돈 사료로 구분된다. 번식돈은 자돈을 생산할 목적으로 기르는 암컷 돼지를 말하며, 자돈은 새끼돼지를 말하고, 육성/비육돈은 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살이 찌도록 기르는 돼지를 말한다. 양돈은 목적에 따라 알맞은 사료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동사는 번식돈, 자돈, 육성/비육돈 사료로 구분하여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표 2] 양돈 목적에 따른 주요 제품군

제품명	내용	제품
맥시맘 (번식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능력 다산성 번식돈의 정밀 영양 설계 및 유효 영양소 강화 - 스트레스 완화로 면역력과 생산성 향상 - 소화기관 보호 및 장 발달 기술 구현 - 대사 안정화로 태반 영양 및 포유 능력 강화 	
큐맥스 (번식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식 단계별 최적의 영양 설계 - 최적의 아미노산 균형으로 포유모돈 체중 손실 최소화 및 재귀발정일 단축 - 연산성 증가를 위한 고단백질 제품 - 엄선된 원료만을 적용 	
넥스트 (자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쿠킹(열+압력+증기)과 소화 흡수력 향상 솔루션 구현 - 저단백 고아미노산의 정확한 영양으로 분변 안정화 확립 - 단백질 합성 능력 활성화로 증체 효율 향상 - 면역의 1차 관문인 장관 면역 균형 확립 - 자돈을 위한 곡물인 슈퍼푸드 채택 - 신개념 항균물질 탑재: 폐사율 0%에 도전 	
히트플러스 (자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미노산 품질 및 수준 차별적용 - 특수 원료 가공으로 소화율 극대화 - 농축 포도즙 첨가: 기호성 및 섭취량 개선, 면역력 증가, 설사 예방 - AESS 첨가 : 지방흡수촉진 - 특수바이오 제제 첨가(FDA 공인물질) - 특수 복합효소제 첨가(특허물질) 	
이큐맥스 (육성/비육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솔루션: 독신저감, 중금속 저감, 유기물 배출 저감, 냄새 저감 - 영양솔루션 : 번식 성적 향상, 장건강 확립, 변비 예방, 대사 안정화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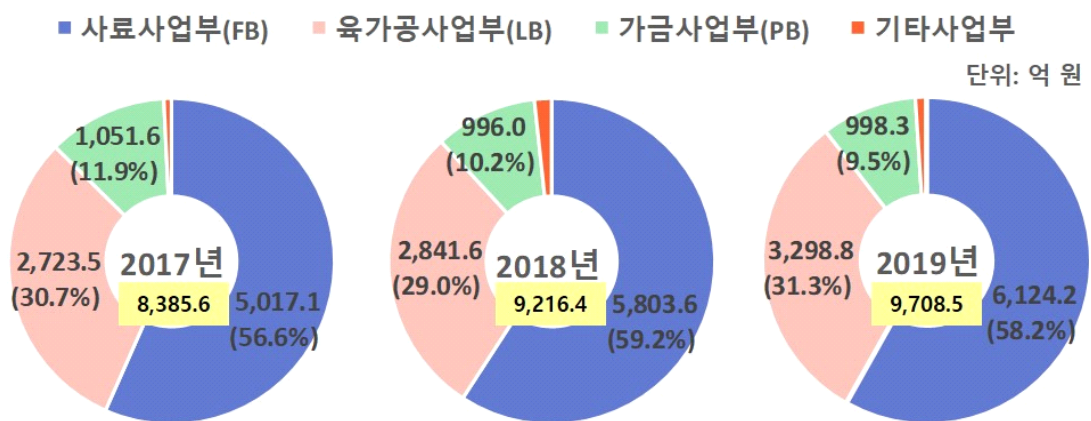
■ 양돈사료 매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료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

동사의 반기보고서(2019.12)에 따르면, 동사의 2018년 매출액은 9,216.4억 원, 2019년 매출액은 9,708.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33% 성장하였다. 2019년 기준 주요 사업별 매출 비중은 사료사업부(FB) 58.2%, 육가공사업부(LB) 31.3%, 가금사업부(PB) 9.5%, 기타 사업부가 1.0%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반기 매출액은 4,675.1억 원, 2020년 반기 매출액은 5,260억 원으로 12.5% 증가하였다.

동사의 사료사업부(FB)는 원재료비(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원가부담은 증가하였으나, 양돈 및 육계 사육두수의 증가, 신규 판매처 개척으로 전년대비 사료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 육가공사업부(LB)는 영업채널 다양화 및 사업규모 확장으로 전년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영향으로 생물자산 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가금사업부(PB)는 시급인상율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가축질병으로 인한 불안정한 원재료 수급 및 시세등 원가상승 요인으로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그림 2] 최근 3개년 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II. 시장 동향

바이러스 감염 등 외부 요인에 민감한 시장 구조

축산업 시장은 경기에 따라 소비가 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구제역이나 콜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시장 예측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

■ 가축질병 등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민감한 축산업

축산업은 가축의 사육부터 판매까지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어 축산물의 물량 및 가격 등의 추이와 정책동향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축의 경우 질병 관리에 예민하며, 구제역이나 콜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변동이 발생한다. 또한, 원재료 가격 및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등 외부요인에 의해 시장 예측이 어려운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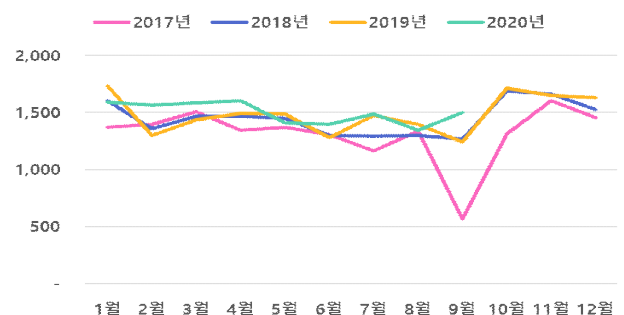
■ 1인당 육류 소비량의 증가로 시장 지속 성장 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 주요 통계' 자료(2020.07)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인당 연평균 육류 소비량은 54.6kg이며, 1980년 11.3kg 대비 약 5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7년 기준 24.5kg 대비 2019년 기준 26.8kg으로 약 9% 성장하였으며, 전체 육류 소비량의 49.0%를 차지하였다. 닭고기 소비량은 2017년 기준 13.3kg 대비 2019년 기준 14.8kg으로 약 11% 성장하였으며, 전체 육류 소비량의 27.1%를 차지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터넷 쇼핑과 배달 주문을 통한 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육류 소비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육류 도축두수 증가, 동사 돼지 도축두수 점유율은 소폭 감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축실적(2020.09)에 따르면, 국내 돼지 도축두수는 2017년 15,732천 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7,825천 두였으며, 2020년 9월 도축두수는 1,496천 두로 전년 동월(1,242천 두) 대비 20.5% 증가하였다. 동사의 2019년 도축두수는 674천 두로 시장점유율 3.7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3.89%) 대비 소폭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국내 돼지 월별 도축현황 (단위: 천 두)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축실적, NICE디앤비 재구성



[표 3] 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 돼지 도축두수 점유율

(단위: 두수)

기업명	2019년 도축두수	점유율	2018년 도축두수	점유율
(주)팜스토리(식육)	674,129	3.78%	676,056	3.89%
(주)우리손에프앤지	390,845	2.19%	365,922	2.11%
도드람	633,780	3.56%	691,424	3.98%
(주)영남엘피씨	596,426	3.35%	559,086	3.22%
도드람김제에프엠씨	572,246	3.21%	210,048	1.21%
제주축협	510,123	2.86%	829,505	4.77%
논산계룡축협	522,442	2.92%	577,385	3.32%
(주)우경축산	525,753	2.95%	415,183	2.39%
홍주미트	501,953	2.82%	503,852	2.90%
기타	12,895,546	72.35	12,552,591	72.22%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19.12),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국내 닭 도계 두수는 2017년 93,602천 수에서 2019년 1,059,994천 수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9월 도계 두수는 84,244천 수로 전년 동월(79,683천 수) 대비 5.72% 증가하였다. 닭 도계 두수는 전월(91,469천 수)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 사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돈 및 양우용 사료

사료 시장은 배합사료(양우용, 양돈용, 양계용, 기타동물, 양어용), 애완동물사료, 단미사료, 사료 첨가제, 기타 사료 시장으로 세분화되며, 전체 사료시장의 절반 이상을 배합사료 중 양우용, 양돈용이 차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2,054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축종별로는 양돈용 생산량(685만 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양계용(620만 톤), 육우용(598만 톤)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이후 양돈용, 양계용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축종별 배합사료 생산량

(단위: 만 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양돈용	609	626	637	655	685
양계용	567	581	543	595	620
고기소	457	454	457	464	479
기타 가축	144	151	135	150	151
젖소용	133	125	119	119	119
계	1,911	1,938	1,891	1,984	2,054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0), NICE디앤비 재구성

또한, 2019년 평균 배합사료 가격은 473원/kg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양돈용 사료가 562원/kg으로 가장 높고, 양계, 젖소용 사료는 평균 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월	평균
양돈용	589	559	549	552	562	578	565
양계용	461	435	426	427	432	427	435
고기소	399	390	380	378	392	417	393
기타 가축	523	511	470	474	490	485	492
젖소용	487	471	460	465	477	492	475
양축용 가중평균	493	473	462	463	473	482	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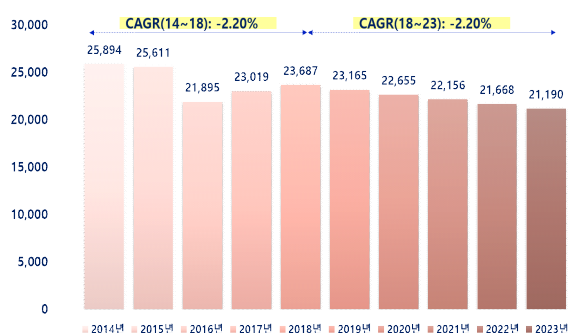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0), NICE디앤비 재구성

■ 국내 배합사료 시장의 과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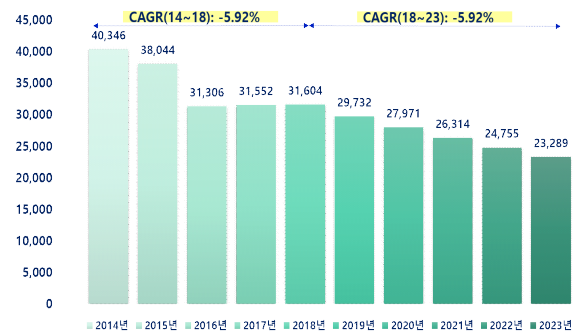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에 따르면, 국내 배합사료(양돈용) 출하금액은 2014년 2조 5,894억 원에서 2018년 2조 3,687억 원으로 연평균 2.20% 감소하였으며, 동 CAGR을 적용 시 2023년에는 2조 1,19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합사료(양돈용) 시장은 선진, 동사, 고려산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 출하금액은 2014년 405억 원에서 2018년 338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국내 배합사료(양우용) 출하금액은 2014년 4조 346억 원에서 2018년 3조 1,604억 원으로 연평균 5.92% 감소하였으며, 동 CAGR을 적용 시 2023년에는 2조 3,289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합사료(양우용) 시장은 선진, 우성사료, 고려산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 출하금액은 2014년 328억 원에서 2018년 28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 국내 배합사료(양돈용) 출하금액 (단위:억 원)



[그림 5] 국내 배합사료(양우용) 출하금액 (단위: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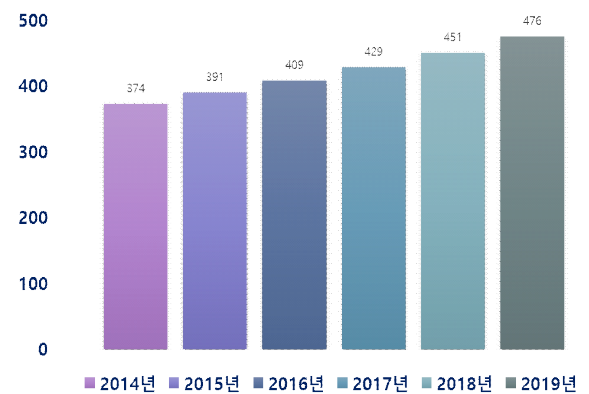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2020), NICE디앤비 재구성

국내 배합사료 공장 수는 183개에 이르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료생산 기업간 인수합병이 추진되면서 배합사료 시장이 과점화 되고 있다. 기존 배합사료 생산 공장도 신규 증설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시장 확대 및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전후로 배합사료 업체들의 인수합병, 계열화로, 시설이 현대화 되면서 생산능력이 높아졌다. 2000년대 초반 배합사료 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식료품 제조업에 비해 낮았으나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식료품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를 추월했다. 현재 농협, 하림, 이지바이오, 대한사료,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의 대기업이 여러 개의 계열 사료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계통 사료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배합사료 시장의 30.6% 수준으로 파악된다.

■ 아시아 지역 양돈 사료량 감소했으나, 가금류 사료량은 증가

Global Animal Feed Market(Technavio)에 따르면, 세계 사료 시장규모는 2014년 3,735억 달러에서, 연평균 4.97% 성장하여 2019년에는 4,761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Market Research Future(MRFR)는 배합사료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아시아를 꼽았다. 아시아 배합사료 시장은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4.21% 성장해 2억 1,120달러 (약 2,522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고품질 배합사료에 대한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 속에 아시아 지역의 도시화와 소득 증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한다는 관측이다.

[그림 6] 세계 사료 시장규모 (단위: 십억 달러)



*출처: Global Animal Feed Market(Technavio), NICE디앤비 재구성

세계 양돈사료량의 경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영향으로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Alltech에 따르면, 2019년 세계 배합사료 생산량 통계를 보면 전 축종 사료 생산량은 11억 2,650만 톤으로 전년도 11억 3,820만 톤 대비 1% 줄었다. 이 중 양돈사료는 2억 6천만 톤으로 2018년 2억 9,230만 톤 대비 10.8%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가 2018년 1억 2,540만 톤보다 무려 26% 줄었으며, 9,330만 톤에 그쳐 세계 양돈사료량 감소를 주도했다. 이는 무엇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이며, 이에 중국의 양돈 사료량(5,174만 톤)이 35% 줄고 베트남(872만 톤)도 21% 가량 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돼지고기 부족으로 대체 수요가 발생한 가금류 사료량은 아시아 지역에서만 9.5%가 증가하는 등 세계 전 지역에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료 수급 및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사료 정책 동향

사료 수급 및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효율성이 높은 단기정책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료 산업은 원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국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료 가격의 변동은 우리나라 축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료 원료의 확보 문제는 축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료산업 정책방향(2019.07)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료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료가격 안정 및 가격인상 최소화화 축산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 중이며, HACCP 적용 배합사료 공장의 검증 및 정기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실시상황 평가 기준을 검토 중이다.

Ⅲ. 기술분석

지속가능한 한돈 산업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 개발로 사업 역량 강화

동사는 환경 및 방역 기준 등 법적인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으며, 가축의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정밀 영양 및 영양소의 정확한 요구량 설정과 친환경 설계를 도입하여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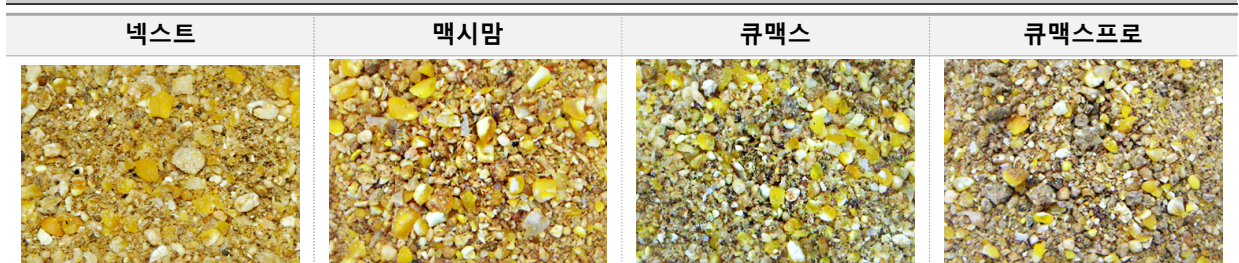
■ 배합사료의 구분 및 주요 원료

사료란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유기 또는 무기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말하며, 배합상태에 따라 단미사료, 혼합사료, 배합사료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배합사료란 두 종류 이상의 사료원료를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사료로 수분함량이 10% 내외인 것을 건조사료, 수분함량이 20-30%인 것을 반건조사료, 수분 70% 이상인 것을 다즙사료, 액체상태인 것을 액상사료라 한다.

배합사료는 사양표준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성장촉진제, 질병예방제 등이 들어있는 완전한 사료를 말한다. 배합사료 내 영양소는 크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및 비타민과 같은 유기 영양소와 광물질과 같은 무기 영양소로 나눌 수 있으며, 사료의 조건은 영양소의 공급능력이 높고, 동물에게 무해무독하여야 하며, 쉽게 변질되지 않고, 영양소의 소화율이 높아야 한다.

배합사료의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곡류는 옥수수, 수수, 밀 등이 있다. 옥수수는 사료용 곡물 중 수요가 가장 많은 곡류이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수수는 덩고 건조한 지역에서 옥수수 대신 많이 재배되는 작물로 영양소 함량이 옥수수와 매우 유사하다. 밀은 대부분 제분되어 식용으로 쓰이고, 옥수수와 같이 주성분이 전분질로 되어 있어 가축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보리는 옥수수 대비 약 88% 정도의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으나, 일부 보고에 의하면 보리가 수수보다 소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리를 먹일 때는 반드시 분쇄하거나 과쇄하여야 하며, 분쇄할 수 없을 때는 12시간 정도 수침처리를 하여야 한다. 쌀은 옥수수의 약 85%의 사료적 가치가 있으며, 분쇄하여 사료의 25~30% 정도 배합 급여하면 성장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육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림 7] 동사 주요 사료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친환경 영양 솔루션 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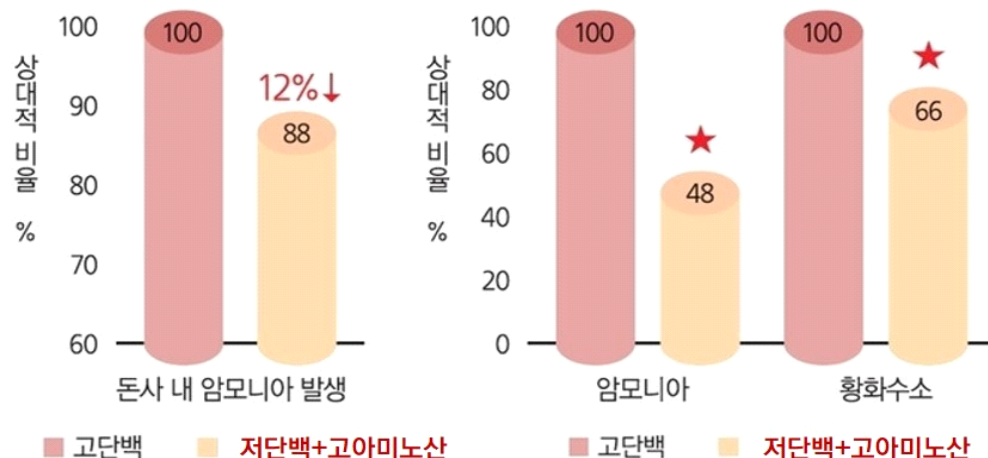
동사는 사료 조성물의 조단백질 함량 수준을 낮추면서 합성아미노산을 첨가하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 및 돈사 내 냄새 유발물질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 양돈사료 조성물에 관한 고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친환경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 냄새 저감 솔루션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냄새를 제어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은 단백질 이용률을 높여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요소배출을 최소화하고, 미소화 단백질 배출을 낮춰 단백질 발효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단백질 이용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저단백+고아미노산 설계이며, 각 아미노산별로 정밀한 비율을 반영하여 개별 아미노산의 과부족 현상을 최소화 해야한다. 저단백질의 영양 설계는 냄새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자돈의 설사 발생 민감성을 낮출 수 있다.

[그림 8] 저단백+고아미노산 설계를 통한 암모니아, 황화수소 감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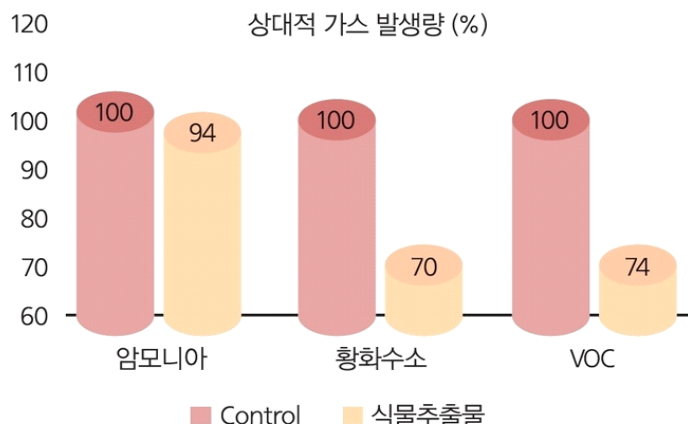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9] 식물추출물의 악취유발물질 억제 효과

(단위: %)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두번째 방법은 냄새 억제를 위한 유효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 식물추출물을 첨가하는 것이다. 사료에 검증된 식물추출물의 첨가를 통해 악취유발물질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고, 암모니아를 발생시키는 요소분해효소를 억제하여 돈사 내 냄새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2. 독신 저감 솔루션

곰팡이와 곰팡이독소는 모든 곡물에서 생성할 수 있으며, 곰팡이독소는 종류와 함량에 따라 가축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다양한 생산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료관리법으로 곡물과 배합사료의 곰팡이독소 함량은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한한돈협회에서도 매년 국내 한돈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주요 양돈사료의 곰팡이독소 함량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곰팡이독소는 열, 압력, pH 등 다양한 조건에서 파괴되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독소 흡착제는 첨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동사는 사료 제조 시 곰팡이독소 흡착제를 첨가하여 곰팡이독소가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3. 유기물 배출 저감 솔루션

사료의 소화율 증가는 돼지 분뇨의 총 배설량 감소뿐만 아니라 분뇨를 통한 질소 배출량과 암모니아 가스 발생량의 감소가 가능하다. 정밀 영양을 통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축적시키고 체외로 배출되는 분뇨의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동사는 가축의 소화 생리적 특성에 기반한 사료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동사는 영양소의 정확한 요구량 설정과 가축의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정밀 영양 설계를 도입했다. 정밀 영양 설계는 가축이 필요한 영양소의 정확한 요구량을 기준으로 영양소 균형을 완성시켜야 가능한 방법이다. 정밀 영양을 위해서는 사료 내 영양소 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검증이 완료되어야 하며, 가축의 성장 능력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동사의 정밀 영양 설계는 생체 이용성을 높여 줌으로서 최종적으로 가스 및 분뇨로 배출되는 미소화 영양소의 함량을 줄이고 있다.

[표 6] 친환경 가축 사료 조성물의 실증

기능	대조구	친환경 사료	개선율
건물 소화율(%)	76.17	79.80	4.8
분 배설량(g/일)	181	160	11.6
분내 건물 배설량(g/일)	58.71	54.46	7.2
분내 질소 함량(%)	3.45	3.31	4.1
분내 질소 배설량(g/일)	2.03	1.80	11.3
노 배설량(g/일)	1578	1457	7.7
노내 질소 함량(%)	0.85	0.68	20.0
노내 질소 배설량(g/일)	13.4	9.9	26.1
분뇨 배설량(g/일)	1759	1617	8.1
총 질소 배설량(g/일)	15.43	11.70	24.2
분뇨내 암모니아 가스 발생량(ppm)	15.0	11.0	26.7

*출처: 동사 홈페이지, (주)NICE디앤비 재구성



■ 열탕 소독 시스템 구축으로 사료 안정성 확보

동사는 안전한 사료 공급을 위해 열탕 소독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사의 열탕 소독 시스템은 소독액의 온도를 60~70℃로 높여 소독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FMD(구제역)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산성제제들은 소독액의 온도가 상승하면 효과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며, 열탕 소독 시 소독액의 온도가 10℃ 상승할 때마다 효과는 2배로 증가하게 된다. 동사는 상시 60~70℃의 온도로 소독하여 약 8배의 소독 효과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소독방법은 소독 효과의 상승으로 비단 구제역 상황뿐만 아니라, PED(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의 주요질병을 예방하고 있다.

열탕 소독 시스템은 소독액의 운동을 높여 소독제 분자의 운동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과 물방울 입자를 미립자로 만들어 소독제 작용 표면적을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구현하여 바이러스를 급격히 불활화시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동사는 열탕 소독 시스템을 구축 및 연중 가동하여 FMD(구제역) 바이러스 발생을 차단시키고 있으며, 사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 자동 복부절개로봇 도입 및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통하여 품질 향상 도모

동사는 도축 및 육가공 시설에 자동 복부절개로봇 등을 설치 및 운영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육류의 품질을 좌우하는데 있어서 도축 단계의 안전과 위생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

동사의 자동 복부절개로봇은 시간당 돼지 600마리를 작업하는 로봇으로 두 개의 칼날이 1마리 단위로 자동 교차되면서 절개와 살균, 소독 등이 이루어지며, 복부절개 과정에서의 오염을 최소화한다. 또한, 항문 적출 과정과 반자동 머리 절단기는 도축 품질과 작업 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탈모기, 화염방사기, 지육 급냉 터널 유닛 쿨러 설비를 교체 및 증설하여 지육 온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공장 내부 지육 이송 통로에 클린존 가드를 설치하여 작업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그림 10] 동사 자동 복부절개로봇



*출처: 농수축산신문,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소포장육(PM) 가공장은 순간 세절기와 자동 라벨기, MAP(산소치환포장) 자동 포장기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원료와 개포, 세절, 포장, 창고 이동까지 자동화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월평균 60만 팩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해외 농업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해외 농업용 바이오 디젤 품종 연구개발

동사는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매년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3년 평균 약 7.48억 원을 투자하였다. 안정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친환경 조성물 개발, 기존 양산제품 개발 및 기술관리, 특허 관리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동사는 특허권 3건, 실용신안권 1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 가축 사료 조성물, 바실러스 서브탈리스 및 이를 이용한 생균제, 올리브유 함유 산란계 사료 조성물 및 상기 사료 조성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저콜레스트롤 계란 생산방법, 사료 운반 차량의 지대 보관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한, 동사는 해외 농업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현지 생산성 및 적응성 조사 등 기술적 판단을 위한 사전 조사 연구와 해외 농업용 바이오 디젤 품종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 위생관리시스템 도입 및 자체 리스크 관리 매뉴얼 운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환경 제제 및 방역 강화 등 지속적인 법적인 규제 증가

[그림 11] SWOT 분석



IV. 재무분석

영업채널 다양화 및 사업규모 확장으로 매출 성장세 지속

사료부문 흡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 규모 확장과 육가공부문 영업채널 다양화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육가공부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원재료의 시세가 상승하여 수익성이 하락하였다.

■ 사료 및 육가공 부문이 매출을 견인

(주)팜스토리는 1991년 4월에 설립되어 2003년 8월에 (주)이지바이오 계열에 편입된 기업으로 연결회사인 (주)이지바이오는 1988년 설립된 후, 인수 합병 등 사업확장과 수직계열화 등을 통해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연매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종합 농축산 기업이다.

사업부로는 사료부문, 육가공부문, 가금부문 및 기타사업부문에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각각 58.2%, 31.3%, 9.5% 및 1.0%로 사료 및 육가공 부문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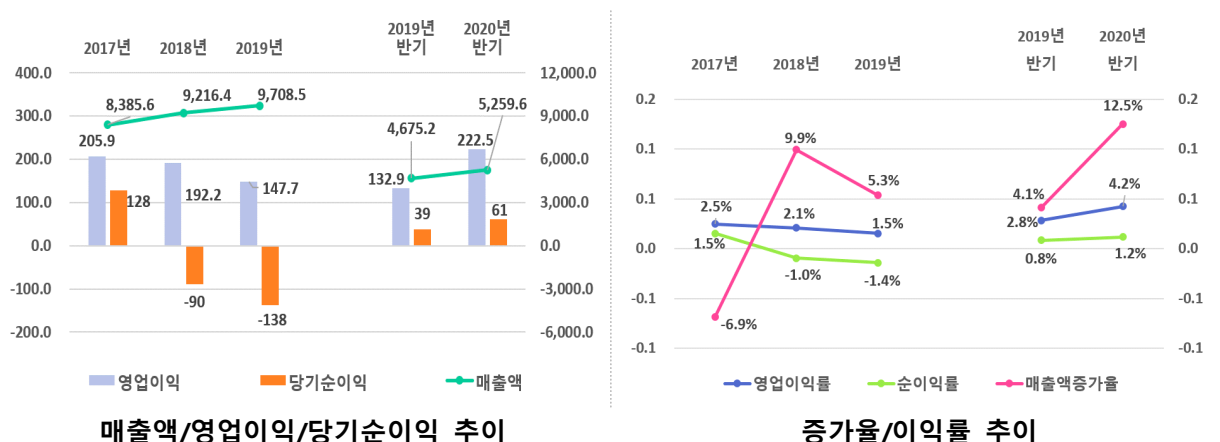
사료사업부문은 동사의 주력 사업으로서 사료산업의 성장 둔화 및 대기업의 사료산업 진출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양돈 및 육계 사육두수 등이 증가하는 시장 영향과 공격적인 판매활동 개척에 따라 사료 매출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

육가공 사업부문은 돈육 브랜드인 생생포크와 한우 브랜드인 생생한우의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대형유통점에 부분육을 납품하는 등 영업채널을 다양화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사업규모 확장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가금 사업부문은 계열사인 마니커에프앤지의 닭고기 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시장의 높은 인지도와 축적된 계육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계육가공 시장에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림 12]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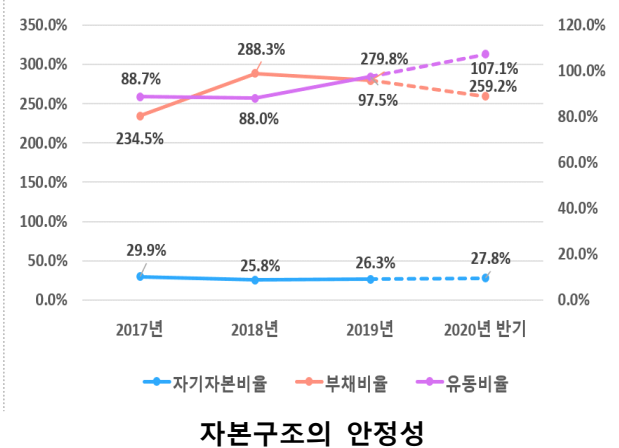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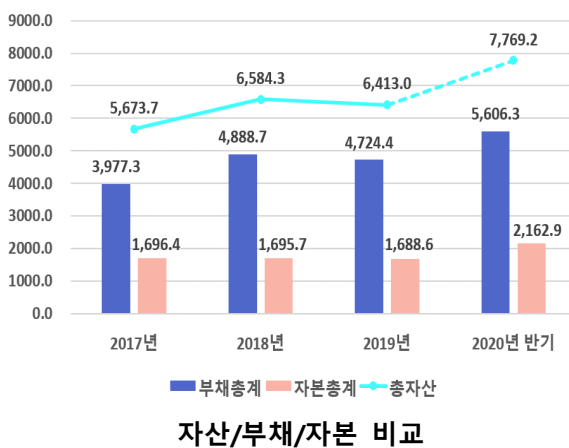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그림 13]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 2019년 주력 사업부분 확장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 지속

동사는 2019년 긍정적인 시장 영향과 적극적인 판매전략에 힘입어 양돈사료 매출 물량이 증가하였고, 사업확장의 목적으로 기중 (주)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를 합병하여 합병 대상의 12월분 매출액이 실적에 포함되는 등 주력사업인 사료부문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또한, 육가공부문에서는 영업채널 다양화 등을 통한 매출 확장으로 인해 2019년 전년 대비 5.3% 증가한 9,708.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매출액 증가세가 이어졌다.

2019년 가금 부문 시급인상률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가축질병으로 인한 불안정한 원재료 수급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3% 감소하였다. 또한, 육가공 부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인한 돈육 가격 시세의 하락으로 인해 판매단가가 급락하여 연결회사인 농업회사법인(주)팜스월드의 영업손실이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연결 기준 2019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1.5%를 기록하였다.

■ 2020년 2분기 매출 성장세와 함께 수익성 개선

2020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5,259.6억 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2019년 급락한 돈육 가격이 2020년 2분기 들어 안정을 되찾으며 2019년 수익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 육가공 부문이 흑자전환하였다. 이로 인한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 222.5억 원[매출액영업이익률 4.2%], 순이익 60.9억 원[매출액순이익률 1.2%]를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수익성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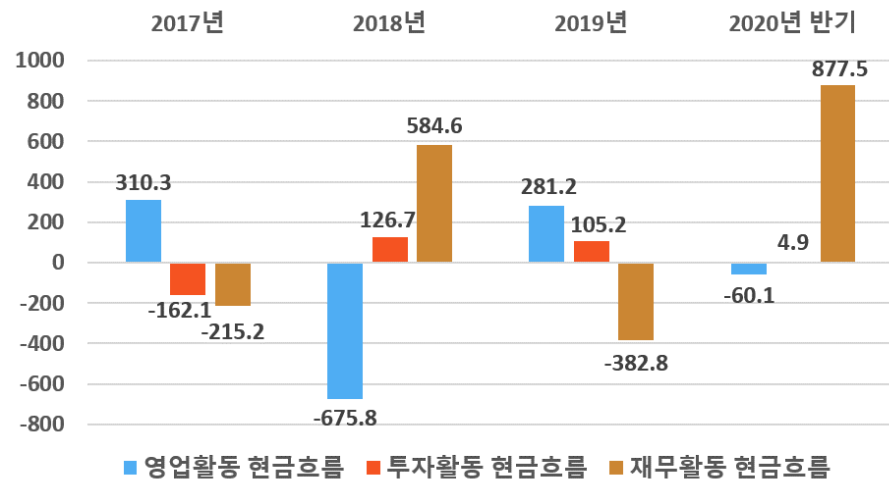
■ 차입금 상환 등 재무활동 상 현금유출을 영업활동과 자산 처분으로 충당

2019년 순손실 시현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 등의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등으로 영업활동상 양(+)의 현금흐름을 나타내었으며, 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 등에 따른 투자활동상 현금유입으로 차입금 상환, 합병비용 등 재무활동상 현금유출의 대부분을 충당하였다. 이외에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을 포함하여 동사의 현금인고는 기초 200.9억 원에서 360.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4]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비대면 및 비접촉에 맞춘 시장 대응 전략 관련

동사는 기존 B2B 시장에서 B2C 구조로 개편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서 비대면 및 비접촉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제 곡물가격의 변화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상승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세계곡물가격지수는 지난달 99.0포인트보다 5.1% 상승한 104.0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3.5% 상승하였고, 7월부터 3개월 내내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밀, 옥수수, 대두, 원당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막대한 곡물 수입과 남미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유럽 내 건조기후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식품소재기 현상에 따른 곡물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베트남, 러시아는 곡물 비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을 중단했다.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등도 자국 농산물의 해외 반출을 중단하였다. 배합사료는 원자재 비중이 90%에 육박하며, 해외의존율 또한 95% 이상을 보인다. 최근 국제 곡물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료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다만, 2020년 4분기는 미국에서 수확된 곡물이 시장에 출하되는 시기로, 미국산 곡물의 중국향 수출이 무역분쟁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곡물 향로 해상운임은 연말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장기화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최근 국내 경기도 화천군 양동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양동농장에서 출하된 어미돼지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되었으며,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 이동통제, 긴급 살처분, 소독, 예찰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돈육 가격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2020년부터 돈육 가격이 다소 안정됨에 따라 매출액 및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나, 2020년 하반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 경기 위축과 가을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등으로 인해 돈육 가격의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온라인 B2C 확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거래의 증가 현상이 발생하면서 육가공부문 매출액 및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코로나19 이슈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B2B 구조에서 B2C 구조로 개편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변화된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가공 제품 물량을 증가하고 있다.



동사는 기존 B2B 시장을 기반으로 편의점, 온라인, 할인점 시장 등에 가정간편식(HMR) 가공 제품을 공급하여 비접촉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해 소포장육(PM) 제품 개발 및 시설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제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